

 제주특별자치도 <small>Jeju Special Self-Governing Province</small>	보도자료	2026. 6. 29.(월) 배포 즉시 보도 가능		
농업기술원		원예작물과장	강상훈	☎ 760-7450
		업무담당자	고혁상	☎ 760-7474
		홍보담당자	양지순	☎ 760-7514

농업기술원, 나물콩 녹체현상 원인 구명 나선다

- 이상기후 대응 안정 재배기술 정립을 위한 연구 본격 착수 -
- 구좌읍 일원에서 품종·해발고도·파종시기별 시험재배로 발생 원인 분석 -

-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(원장 김태균)이 지난해 일부 나물콩 재배지에서 발생했던 녹체현상의 원인을 구명하고 안정적인 재배기술을 정립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.
 - 녹체현상은 나물콩이 수확기에 이르렀음에도 잎과 줄기가 푸른 상태로 남아 있는 현상으로, 지난해 10월 고온·다습한 기상 여건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의 나물콩 재배지에서 30% 이상 수량이 감소하는 문제가 있었다.
- 이에 농업기술원은 녹체현상의 발생 원인을 구명하기 위해 구좌읍 일원에서 품종과 해발고도, 파종시기를 달리한 시험재배를 추진한다.
 - ‘아람’ 과 ‘해찬’ 품종을 대상으로 해발고도 40m·140m·220m와 파종시기 6월 중순·하순으로 구분해 재배한 뒤 녹체현상 발생 정도를 비교·분석할 예정이다.
 - 특히 ‘해찬’ 은 성숙기가 빨라 녹체현상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상되며,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정적인 나물콩 품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.
- 이번 연구를 통해 기상환경과 품종, 재배 조건이 녹체현상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고, 재배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재배기

술 정립해 농가에 보급할 방침이다.

- 농업기술원은 앞으로도 농업인과 함께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, 재배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품종과 기술을 발굴·보급해 제주 나물콩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힘쓸 계획이다.
- 고혁상 농업연구사는 “급변하는 이상기후 속에서 제주 나물콩 산업을 지키기 위해 녹체현상의 명확한 원인을 밝혀내는 것이 급선무”라며 “이번 연구를 통해 농가에 안정적인 재배 기술과 품종을 신속히 보급하고, 농가 소득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고 말했다.